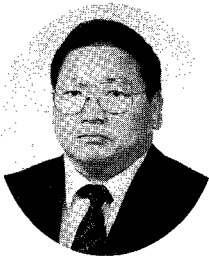




축협중앙회

이기동조합장 조합장이사 선출



△이기동 조합장

개정 축협법 시행으로 신설된 축협중앙회 신용담당 부회장에 오우현 전 중앙투자신탁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임시총회에서 선임됐다.

또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2인의 외부인사 김영철 건국대교수와 이덕훈 한국개발원 선임연구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공식중인 조합장이사로 이기동 전북양계조합장, 김운수 보성축협조합장, 전두환 강원양봉조합장을 각각 선출했다.

수입닭고기 6월말 현재 1천3백70톤 수입

닭고기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배정한 후 국내에 수입된 외국닭고기는 4월에 수입된 물량은 1백98.3톤으로 하림 대진식품, 해마로 등에서 들어왔으며 5월에는 3백703톤을 해태상사, 삼성물산에서 그리고 6월에는 삼성물산, 미주트레이딩에서 8백1.4톤을 수입해 6월까지 총1천3백70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된 닭고기는 대부분 부분육중 복채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수수 추가수입

농림수산부는 지난 10일 주요곡물사료 곡물인 옥수수, 대두 등에 대한 금년도 C/S 증량을 최종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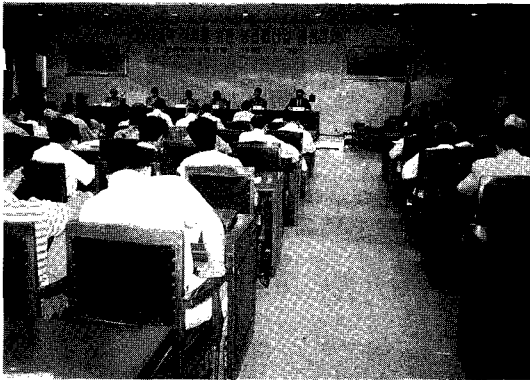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95년도 C/S 물량이 4백72만1천1백톤인데 원료수급상 부족하기 때문에 3백51만6천9백톤을 추가수입케 됐다.

사료용 대두 역시 당초 계획물량인 84만6천3백35톤을 증량, 모두 1백22만2천톤을 수입키로 했다.

농업과학기술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이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주최한 농업과학기술 세계화 국제심포지움이 25, 26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 7개국의 농업분야 석학들을 초청하고 국내·외 농업관련인사 등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세계 식량수급 전망 및 대책 등 폭넓은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관련산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은 농업의 올바른 발전을 제시키 위해 지난 20일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관련산업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준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이 주제 발표로 나선 이날 토론회는 “농기계·농자재 산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진국 전농 농업기술 국장이, “비료·농약·종자 산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박동진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장이, “유통·가공 산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배종렬 무안양념채소유통사업 영농조합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안전축산물생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축협중앙회는 지난 4일 축산관련공무원과 조합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안전축산물생산을 위한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를 예방,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전축산물생산을 위한 여건변화 및 정부시책이란 주제로 배상호 가축위생과장이, 안전축산물생산에 따른 종축관리 및 사양관리란 주제로 탁태영 과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외에 질병관리요령, 동물약품생산 및 사용요령, 사료생산 및 급여방법 등 각각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축산물 안전성 전국 순회 교육을 지난 12일 부터 27일까지 일선 축협관계자,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95한국양계박람회에
양계인 및 관련인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